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지 면) 09.18.(금) 조간
(인터넷) 09.17.(목) 14:00

부산중기청, 2026 부산 외국인 유학생-지역 중소기업 잇는 취업 연계형 인턴십 성료

- 지역 중소기업 13개사·외국인 유학생 14명 매칭, 7~8월 2개월간 현장 인턴십 진행
- 전공·외국어 역량 활용한 기업 실무 배치로 지역기업 글로벌 인재 확보 가능성 확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한국남부발전, (재)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과 함께 추진한 「2026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중소기업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9월 17일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13개사와 외국인 유학생 14명이 참여해 7~8월 두 달간 기업별 수요와 유학생의 전공·희망직무를 고려한 맞춤형 인턴십을 진행했다.

참여 유학생들은 마케팅·시장조사, 해외영업 및 고객개발, 생산·품질관리, 엔지니어링, IT 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기업 업무를 경험하며 국내 기업의 업무방식과 조직문화를 익혔다.

특히 올해는 인턴십 운영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2개월간 현장실습을 실시했으며, 사전 직무교육과 기업별 멘토 지정을 통해 유학생들의 업무 적응과 기업 내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별 맞춤형 직무배치, 업무계획 수립, 멘토 지정 등을 통해 실무 중심의 인턴십을 운영하도록 했다.

인턴십 운영 기간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서 기업들의 인턴십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 평가에서 인턴십 종합만족도는 '매우 만족' 64%, '만족' 29%로 나타났으며, 유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57%가 '매우 만족', 43%가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유학생들은 실제 한국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을 인턴십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자동차용 제동장치 제조업체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마케팅 업무를 성실하게 지원했다”며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외국인 인재가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 출신 압디사 합타무 동서대학교(컴퓨터공학과 4학년) 학생은 “한국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연구 검토부터 데이터 구축과 모델 학습까지 업무 전 과정을 경험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며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팀원들과 업무를 조율하면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업들의 향후 채용 및 사업 참여 의향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가운데 3개사는 인턴 유학생의 채용을 희망했고, 10개사는 향후 채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의 인턴십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구인·구직 수요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인턴십을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는 인턴십 기간 확대와 직무 중심의 매칭, 졸업예정자 중심의 참여자 선발, 비자 전환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책임자	과장	박경수	(051-601-5120)
		담당자	주무관	권혁선	(051-601-5128)
	한국남부발전(주)	담당자	차장	유은지	(070-7713-8942)
	(재)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	담당자	차장	손희승	(051-711-686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